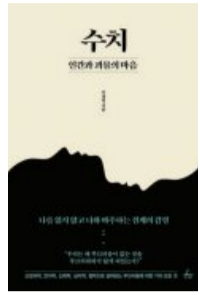


“우리는 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수치-인간과 괴물의 마음’은 이색적인 책이다. 제목에서 보듯 수치의 속성은 인간의 마음과 괴물의 마음을 지녔다. 저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창일 박사는 수치에 대한 정체를 추적하고 그 의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종교학, 정신분석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을 넘나들며 오늘의 사회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위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태도와 같은 것이다. 남명 조식은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삼혈을 기울였고, 정약용은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는 태도인 ‘심독(慎獨)’을 재해석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매천 황현은 “국난을 당해 죽는 이 하나도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했다.

저자는 시인 윤동주의 부끄러움에는 순교 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본다.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못했던 윤동주가 지녔던 부끄러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라를 잃고 언어를 잃어도 시인 노릇을 못할 것도 없다. 그때도 시인은 많았다. 또한 교감 능력만을 사용해서 사태를 짐짓 외면하고, 수사의 기교로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 공감하면, 내면에 샘물이 솟듯 부끄러움이 가득 차고, 세상의 물결치에 부끄러워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 의로움이 생겨난다.”

한편으로 자연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수치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적응하면서 뇌 속에 각인된 ‘이차 감정’, ‘공감 감정’으로 본다. 공감을 토대로 하기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공감이 마비된 상태나 다름없다.

공감이 폐기된 사회에서 피아 구분과 자기 증명이 관심사항으로 대두됐다. 승패와 손익으로 관계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무시를 당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에는 둔감해지는 게 오늘의 세태다.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이렇게 요약된다. ‘나를 잃지 않고 나와 마주하는 경계의 감정, 그것이 곧 수치다.’

〈추수밭·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 근원적 수치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모티프다. 〈추수밭 제공〉

수치-인간과 괴물의 마음

이창일 지음

다음은 무엇에 대한 정의일까. 두 글자로 요약이 가능하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윤동주),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맹자), “나는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을 바탕으로 삶으로 나아갔다”(가를 용), “수치는 필멸하는 인간이 육신에 남은 범죄다”(아우구스티누스)

그렇다. 바로 ‘수치(羞耻)’다. 사전적 의미의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또는 그런 일”을 일컫는다.

오늘의 시대는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다. ‘죽은 부끄러움의 사회’이자 ‘수치 중독 사회’인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철면피의 사회가 돼 버렸다. 나는 괜찮고 너는 그러다는 내로남불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이들에게서 더 많이 보인다.

수치는 때로는 사람을 완성하고 때로는 사람을 파괴하는 두 얼굴의 감정이다. 수치에 중독돼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이 마비된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본

다양한 학문을 넘나들며 오늘의 사회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우리는 왜 사라진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는가?”가 책을 쓰게 된 배경이다. 사실 오늘 날처럼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는 없었는데 역설적으로 부끄러움이 범람하는 시대 또한 오늘의 사회다.

우리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다. 사람들은 규범을 상식으로 내면화하고 이에 어긋나는 행위는 심리적 규제를 가한다. 사회 기도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반응이 수치인데,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애초에 수치는 야누스와 같은 이면을 지녔다. 인간의 근원에는 감정의 지옥이 드리워져 있다고 본다. 저자는 ‘아담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이래’ 수치는 인류 역사에서 부정적 맥락으로 사용돼 왔다고 본다. 망신살이 뻗어나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는 상황에 접할 때 인간은 수치에 사로잡힌다. 저자는 이를 수치의 ‘아래쪽 얼굴’이라 설명한다.

반면 옛 선비들이 강조했던 염치의 개념으로 수치를 볼 수도 있다. 분회파가 말한 타인과의 공존을

인간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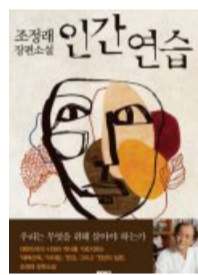
조정래 지음

우리 현대사 100년을 선 굵은 작품으로 그려온 조정래 작가. 그는 대하소설 3부작 ‘태백산맥’의 ‘아리랑’, ‘한강’을 통해 분단의 비극과 상처를 작가 특유의 역동성 있는 서사와 문체로 파헤쳐왔다.

이번에 펴낸 장편 ‘인간연습’은 15년 만에 개정 출간된 작품으로 일생을 걸고 추구했던 사회주의 몰락 앞에 고뇌하는 한 장기수의 삶을 그렸다. 지난 2006년 ‘실천문학’ 봄·여름 호에 분재됐던 작품으로 ‘사회주의 붕괴와 20세기’라는 주제를 다뤘다.

무기형을 선고받았던 남파 간첩 윤혁과 장기수 박동건이 강제 전향을 하고 풀려나지만 이후 ‘전향자’라는 심각한 고통에 시달린다. 남파와 북한 어느 쪽에도 소속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의 내면을 짓누른다.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인민을 위한 세상’을 꿈꾸었지만 빈곤과 부패로 점철된 ‘사상의 조국’ 소련과 북한의 실상을 접하며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충격에 사로잡힌다. 앞선 데 맞춘 격으로 박동건마저 죽고 이제는 윤혁이 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혁은 점차 과거를 딛고 새 삶에 대한 희망을 모색한다. 현실인식을 토대로 젊은 시민운동가 강민규와 교류하며 세상에 대한 균형감각을 회복한다. 무엇보다 ‘두 손이 꽃’과 같은 어린 남매를 돌보며 생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된다. 이처럼 소설에는 인간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까지 ‘인간 연습’은 계속된다는 작가의 열망이 드리워져 있다.

황광수 문학평론가는 “분단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해온 한 개인의 시각을 통해 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평했다.



〈해냄·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롤러코스터를 타는 오렌지 재킷

안수아 지음

지난 2007년 ‘시와 세계’로 등단한 보성 출신 안수아 시인의 첫 시집 ‘롤러코스터를 타는 오렌지 재킷’은 시가(詩歌)를 떠올리게 한다.

‘시가’는 시와 노래를 일컫는 말이다. 본래 시는 노래였다. 운율과 리듬이 있어 그대로 읊으면 노래가 되었다.

권은 문학평론가의 표현대로 “진정한 ‘시’는 ‘음악’과 하나가 된다”는 것처럼, 안 시인의 작품이 주는 음악성은 운율을 잃어 버린 오늘의 시를 생각하게 한다.

‘설마’, ‘휴일의 카프리스’, ‘피장주의보’, ‘유리도시’, ‘시sawsee-saw’의 작품은 특유의 분위기를 창출한다.

“...팔라켄이 여인이 모퉁이를 돌아가는/ 정오 그 정오가 한 옥타브 낮아진/ 바다 그 바다처럼 깊어진 한낮/ 이슬 속의 내음으로 번져가는/ 24개의 무반주 카프리스, 백일몽으로/ 가뭇게 흔들리는 오후 내시(‘휴일의 카프리스’ 중에서)

위 시 ‘휴일의 카프리스’는 공간과 시간을, 음악성을 매개로 형상화한 시다. 한 편의 노래 같기도 하고 한 편의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반적으로 작품들은 자유로우면서도 일정한 리듬을 지키려는 길항의 관계에 놓여 있다. 오늘날의 사유와 난해한 관념으로 덧칠해진 현대사가 상당 부분 잃어버린 고전적인 형식을 특유의 개성적인 시어와 운율로 풀어낸다.

안수아 시인은 작가의 말에서 “아버지가 심어주신 책 읽기 참으로 오랜 세월 쌓여 울화로 꽃대 올린 나무 한 그루 세상 밖으로 담뱃피 내밀어본다. 질척거리던 발걸음이 경쾌한 탭댄스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한다.



〈시산책·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 인권운동가 소파 방정환

민운식 지음

1921년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하고 1923년 5월 1일 한국 최초의 어린이 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세상을 하직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어린이를 부탁해”라고 말하며 떠난 소파 방정환 선생의 서거 90주기를 맞아 그의 일대기를 다룬 ‘어린이 인권운동가 소파 방정환’이 출간됐다.

시인이자 문화비평가로 활동중인 저자 민운식은 소파의 일생을 치우치지 않게 그리기 위해 소파의 아들, 소파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소파의 일본 유학지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책은 ‘소년의 꿈’, ‘청년 독립’, ‘시대의 고통’ 등 총 3장으로 구성됐으며, ‘소파는 고민하고 행동하고 사랑했습니다’, ‘청년 너희가 시대를 아느냐’에 대하여, ‘소파 방정환에 대한 중대한 ‘3가지 오해’ 등 특별부록도 실렸다.

저자는 남녀가 다르지 않으며 계급에 따라 인간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평등주의자, 회생당하는 민중을 염려하고 나약한 위치에 있던 여자와 아이들을 위하고자 애쓰는 박애주의자, 서구의 다양한 문학작품을 소개해 민중의 자주·독립·자유 의 사상을 인식시키고 그 지평을 넓혀고자 한 문화 운동가 등 다양한 모습의 방정환을 소개한다. 아울러 대가족제도·식사 준비·전통 의복과 주택의 개선을 주장하고 실천한 실용주의자이면서 사회를 개혁하고자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으나 사상에 구속당하지 않은 진보주의자 방정환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저자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살다 간 영원한 조선 청년 방정환, 그는 선각자 체취가 강하게 풍겨 오는 멋진 멘토다”고 말한다.



〈스타북스·2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예금 한시모집!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8개월 연 1.87% (세전/만기해지)

12개월 연 1.80% (세전/만기해지)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됩니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완전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화신탁 첫거래시 **행복적금 연 4.0%**
(1인 월20만원 한도, 오픈뱅킹 가입조건) (세전/만기해지)

주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교세중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촌로 315번길)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5)

첨단지점 576-4150 (북구 첨단로 91번길과 9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49)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4)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1-25호(2021.04.30.) 유효기간(2021.05.03.-2021.05.31.)